

투데이

“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젊은이들 우정 변치말자”

광복절에 광주 찾은 日 대학생 57명 전남대 ‘국제여름학교’서 문화 체험

“한·일 양국이 정치적인 이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 모든 국민이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한·일 양국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가 지난 15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여는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도호쿠(東北)대학생 오자키 단지는 한·일 간 독도문제로 참여한 학생들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광주를 방문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한·중·일이 협력해서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쿠시안(國士館), 오사카(大阪), 규슈(九州) 대학 등 일본 14개 대학에서 57명의 일본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항 간 양방향 국제화를 꾀하려고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다.

전남대국제협력 본부는 최근 불편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고쿠시안 대학의 세키네 유다이씨는 “친형이 2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참가한 뒤 한국인 친구들과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은 오전 한국어 수업, 오후 남도지역 문화 체험 활동으로 진행된다.



16일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가 주최한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전남대, 일본 대학생들이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한국어 수업은 전남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사팀과 일어일본학과 객원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자체 제작한 한국어 교재가 활용된다.

문화체험 활동은 음식 만들기, 전통복장 체험, 풍물 난타 체험, 전통시장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오는 25~26일에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및 근현대사 강의 청취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국립 5.18묘지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남대 학생 23명이 프로그램 전 과정을 동행하며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 대학생들과 우정을 쌓게 된다.

이 대학 국제협력본부장인 신경구(영어영문학과) 교수는 16일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국제 여름학교는 그 의미가 크다”면서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냉철하게 공부해야 하지만 응서와 화해의 정신을 기본으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추석전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차지사 관련부서에 지시

태풍 ‘우이파’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가 “태풍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비와 복구비 등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장부 지원액이 확정·교부되기 전이라도 전남도의 예비비를 활용,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생활비와 지원금 등을 추석 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

련 부서에 지시했다. 추석은 앞두고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사유시설 168억7000만원, 공공시설 837억2000여만원 등 모두 1005억9600만원의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전남도는 태풍 우이파에 대한 1차 피해조사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한 뒤 22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총리, 박지사 통해 가거도 피해주민 위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가거도 방파제 피해와 관련 주민들을 대신 위로해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통합방위협의회 직전 박 지사와 전화통화에서 “기상 악화로 가거도 방파제 유실피해 현장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조만간 방문하겠다. 가거도 주민들에게는 아

쉬움과 위로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이에 곧바로 가거도 출장소와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총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또 김 총리에게 “태풍 피해를 본 전북 양식어민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전통시장·구도심 상가 지원기관 설립 추진

광주시가 전통시장과 구도심 중심 상권을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 기관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청, 광주시, 각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는 전통시장·구도심 상권 관련 대책 및 사업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광주시는 16일 “유통시장 개방과 소비패턴 변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최근 그 임박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과 구시장의 책무 ▲행정구역 변경으로 분리되는 광주 건축자재의 거리 명칭 공동사용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일부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유통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민간 중심상권관리기구의 설치와 사업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0월, 광주·전남 방문주간으로”

꽃시장 제안, FI 대회 지원도 약속

광주시에 16일 “유통시장 개방과 소비패턴 변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최근 그 임박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시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는 10월 광주·전남에서는 디자인비엔날레와 세계김치축제, UFA 광주정당대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아트페어, 정음성음악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펼쳐진다”며 “이를 행사를 연계,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10월 첫째주와 둘째주를 ‘광주·전남 방문주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F1대회가 열리는 영암과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 경험은 있다”며 “이를 확대해 전남 각

검찰 ‘빅4’ 등 새 진용 갖춰

검찰 지휘부가 새로운 체제로 정비됐다. 법무부 차관에는 길태기(53·연수원 15기) 서울남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에는 노한균(54·연수원 14기)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채동욱(52·연수원 14기) 대전고검장이 각각 발령됐다.

대전고검장은 김진대(59·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은 소

병철(53·연수원 15기)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은 김홍일(55·연수원 15기) 중수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18기 8명으로, 정인창(대검 기획조정부장), 변찬우(서울고검 형사부장), 오세인(서울고검 공판부장), 이영택(서울고검 총무부장), 김주현(대전지검차장), 김해수

(대구지검1차장), 문무일(부산지검1차장), 강찬우(광주지검차장) 등이다. 신임 재경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송해은 ▲서울남부지검 김수남 ▲서울북부지검 이태훈 ▲서울서부지검 김현우 등이다.

일선 지방검찰청 진용은 ▲의정부지검장 함병관 ▲대전지검장 정동민 ▲대구지검장 신종대 ▲부산지검장 석동현 등으로 짜였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시·군 축제현장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남의 대표적 국제행사인 F1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뿌리인 광주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개최되는 UFA광주정당대회 참가자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김치축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전통음식의 김치를 맛 볼 수 있도록 정당의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간 경제조정 후속조치와 구비 확보, 실질적인 읍지연습, 문화콘텐츠 사업을 유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벤치마킹 등을 주문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 천일염 농약 사용여부 실태조사

전남도가 도내 염전 생산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천일염을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일부 천일염 생산지에서 제조제와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9일까지 신안·영광·해남 등지의 염전에서 농약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언론을 통해 일부 천일염 생산지의 농약 살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확인 조사를 나서서 한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농식품부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러나 “천일염이 식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되던 시기에는 일부 염전에서 제조제 사용이 이뤄졌으나 지난 2008년 3월 ‘염리법’이 개정되면서 대다수 염전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위업체 유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벤치마킹 등을 주문했다.

를 충분히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성분분석을 의뢰한 강릉대 허장현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신안·영광·무안 등 전남 서남해안 염전 면적이 전국의 80%에 이르는 만큼 예산 타당할 게 아니라 차체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슬레이트 해주(물을 저장하는 곳)와 소금창고 정비, 염전 바닥 교체 작업 등 ‘명품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영광·무안 등 전남 서남해안 염전은 3007ha로, 전국(3778ha)의 80%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신안군(2181ha)이 가장 많고, 목포(38ha), 무안(78ha), 완도(6ha), 해남(131ha), 영광(568ha), 보성(5ha) 등이다. 생산량은 2009년 32만6770t, 2010년 19만2608t으로 전국 생산량(2009년 37만7480t, 2010년 22만2448t)의 80%가 넘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매투자
공공투자자 및 자본주 중심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지상권 등 특수물건만 투자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품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齋 ~ 치료 치료

폭넓은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1년 제7기)
개강일시 : 2011. 9. 5(월) 기초주반반 9:00, 기초야반반 18:00
심화주반반 9:00, 심화야반반 18:00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1. 8. 1(월)~2011. 9. 2(금)
수업기간 : 2011. 9. 5(월)~2011. 12. 23(금) (1학기15주105시간)
수강료 : ₩360,000
모집인원 : 기초반 - 주반반, 야반반 각 30명
심화반 - 주반반, 야반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반반 09:00~12:30
- 야반반 18:00~21:30
수료 후 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지역특 특기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기금회(법과 후 교육)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5급)취득기회 부여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일 공휴일 휴무)
전화 ☎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S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7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국가공인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3기) 광주교육대학교(제4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1.9.2(금) 09:10(3.2)
오후반·2011.9.2(금) 14:10(3.2)
·토요일 오전반·2011.9.3(토) 09:10(2.1)
모집기간 2011 8 1(월)~9 3(토) 2011 8 1(월)~9 10(토)
수업기간 2011.9.2(금)~2012.2.11(토) 2011.9.8(목)~2012.2.18(토)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14:10-18:00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40,000 (예금주:광주여대) ₩340,000 (예금주:광주교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유체금: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기금회(법과 후 교육)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5급)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eue.ac.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회 기금서비스 · 개인회계전문가의 철저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 1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용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기간 - 1년~10년 (최장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사용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KBSI세+80%+α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연 3.93%~ 담보대출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